

# 석유제품 소비 “가격효과 대단”

## 7월 휘발유 소비량 10.1% 감소 ... 나프타 제외 줄줄이 감소

고유가 영향으로 휘발유 소비량이 1년5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대폭 감소했다.

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,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7월 488만4000배럴로 2004년 7월 543만1000배럴에 비해 10.1% 줄었다.

2004년 2월 14.5% 감소한 이후 가장 높은 감소폭이다.

또 경유자동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유 소비량은 991만3000배럴로 3.3% 줄었고, 대표적인 서민용 유류인 등유는 69만1000배럴로 10.7% 감소했다.

7월 전체 석유제품 소비는 5683만1000배럴로 1.1% 증가했으나 산업용인 나프타를 제외하면 3430만8000배럴로 오히려 2.0% 줄었다.

정유기업의 7월 휘발유 내수판매량은 SK 9.4%, GS칼텍스 9.3%, S-Oil 14.4%, 현대오일뱅크 5.7% 감소했다.

2005년 들어 7월까지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7.7% 오른 리터당 1438원대이나 서울지역 평균은 15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.

경유는 7월 시행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135원을 기록해 연초 930원보다 22% 뛰었다.

<화학저널 2005/08/26>